

완도군, 코로나19 ‘심리 방역’ 노인 우울증 관리 박차

독거노인 등 경로당 이용 어르신 4천여 명 우울 검사 완료
고위험군 7.5%(297명) 치료 프로그램 등 특별관리 돌입

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심리 방역의 대책으로 노인 우울증 예방·관리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독거노인을 포함한 경로당 이용 어르신 4천여 명에 대해 우울증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완도군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31.4%인 1만 5천 946명이며, 이중 3.9%인 2천 4명이 홀로 사는 어르신이다.
군은 5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알아보기 위해 우울증 검사를 진행 중이며, 검사 결과 검사자 3,982명 중 정상이 1,842명(46.3%), 가벼운 우울감이 1,843명

(46.3%), 297명(7.5%)이 중증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평소엔 자주 방문하던 경로당, 노인 대학 등이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서 어르신들의 무료함과 외로움이 우울증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군에서는 중증 우울감을 호소하는 7.5%인 고위험군 어르신 297명에 대해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
관리 방법은 ▲1단계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재방문하여 건강 체크와 상담을 통한 우울증 재검사가 이루어지고,

▲2단계는 완도군정신건강 자문 의사(해남해민병원장 최봉길) 심층 상담이 진행되며, ▲3단계는 증상에 따라 약물 치료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속적 사례 관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정신건강 회복과 일상생활 조기 복귀를 위해 노인대학과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우울증 예방 교육과 자살예방 교육이 진행 중이며, 9월부터는 완도읍 등 4개 권역의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완도군보건의료원 김선종 원장은 “우울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감기 같은 질환이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 질병인 만큼 주저하지 말고 우울 검사와 상담을 받



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울증 검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완도군정신건강복지센터(550-6745)

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완도=김광수 기자



여수시 경호초 치매극복 선도학교 지정

현판전달식 개최...치매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앞장

여수시가 경호초등학교를 여덟 번째 치매극복 선도학교로 지정했다.
시는 최근 경호초등학교에서 현판전달식을 갖고 치매극복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
치매극복 선도학교는 치매에 대한 정기적 교육을 통해 치매예방을 위해 힘쓸 뿐 아니라 학생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이해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호초등학교장은 “전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치매파트너로서 일상에서 만나는 치매환자에게 먼저 다가서는 배려를 하고, 치매예방 홍보활동 등 치매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금까지 여수고, 한영고, 동초등학교 등 7개 학교를 치매극복 선도학교로 지정한 바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배다인 동화작가, 광주교육청에 도서 기증

장편동화 ‘과도 너머 푸른 꿈’ 200권 장애학생 꿈 위한 나눔

배다인 동화작가가 8일 광주특수교육지원센터 방문해 본인의 저서 ‘과도 너머 푸른 꿈’ 200권을 광주 관내 장애학생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광주교육청에 기증했다.
배다인 동화작가는 그동안 ‘은골무’, ‘고양이가 데려간 여행’, ‘아기 체비 번지점프하다’, ‘초록 집밭’ 등을 포함한 많은 작품들을 집필했고, 지난 1월 하멜 이야기를 모

티브로 한 장편동화 ‘과도 너머 푸른 꿈’을 출간한 바 있다.
배다인 동화작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가는 과정인 것 같다”며 “장애학생들도 노력을 통해 자신이 품고 있는 꿈을 꼭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강영 유아특수교육과장은 “배다인 작가님이 기증해 주신



동화는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부할 계획이다”며 “배다인 작가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동화를 집필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담양군, 폭염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

담양군이 폭염대비 어르신 보호 특별대책을 마련해 건강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로당 등의 휴관이 계속됨에 따라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한다.

지난 6일부터 폭염대비 행동요령 및 건강관리 방문 교육을 수시 운영하고 있으며, 폭염의 취약한 어르신의 가족 등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또한 폭염 특보 발효 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 1,459명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207명에 대해

안전 확인을 강화하고 무더위 시간대(12:00~17:00)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다가올 무더위에 어르신들의 건강관리가 크게 우려된다”며 “군에서 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최대한 추진해 폭염에 의한 어르신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